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25(수) 10: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(02-2110-5301), 김종우 사무관(5302)

산업부, 제3차 무역회의에 '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' 보고

- 노후산단 리모델링에 정부역량을 결집,
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·융합공간으로 재편 -

〈 핵심 요지 〉

□ **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**에 **정부역량을 결집**하여 산업단지를 **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·융합 공간으로 재편** 추진

① 25개 리모델링 단지(구조고도화 17개, 재생 8개)에 단지별로 2~3개의 **융복합집적지를 조성**하고 이를 거점으로 **전체 산단의 공간재편**을 유도

② 융복합 집적지에는 **TP, 전문연, 시험인증기관, 디자인센터 등 산업기반시설을 이전·집적**하여 **혁신역량을 강화**

③ 또한, **부처별 산단관련 사업을 연계·활용**하여 **보육시설, 도서관, 문화센터, 공동 기숙사** 등 **문화·복지·편의시설을 대폭 확충**

□ 정부는 **2013.9.25(수) 오전, 박근혜 대통령 주재**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**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**하고, **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**을 보고하였음

○ 이날 회의에서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: 윤상직)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**「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」**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하였음

○ 또한, 기획재정부(장관 : 현오석)는 **「3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」**을 총괄 보고하였고,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: 이동필)는 **「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」**을 보고하였음

□ 산업부가 보고한 **「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」***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* (산업부) '노후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'/ (국토부) '新산업에 부응한 입지공급'

1. 산업단지의 현황과 성과

□ **산업단지는 '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(現 서울디지털단지)* 최초 지정** 후 양적·질적으로 **팽창****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**해 왔음

* 근거법령 : 「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」, '76년 국가수출의 13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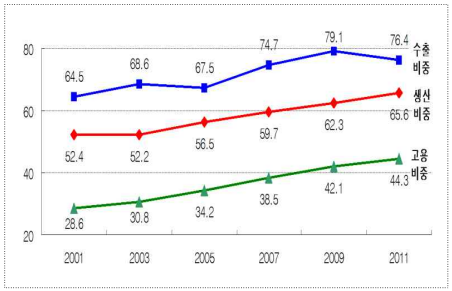
* 산업단지 수 : ('00)493개 → ('05)587개 → ('10)901개 → ('12)993개 (지정면적 1,359km^2, 서울시 면적(605km^2)의 2배규모)

< 전국 산업단지 현황('12.12월 기준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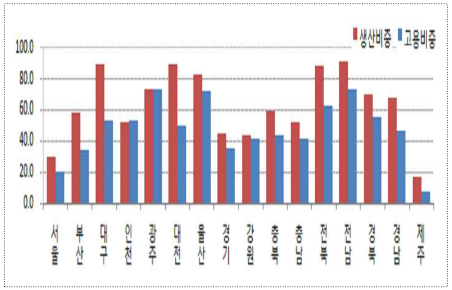
구 분	지 정 (개)	가 동 (개)	가동업체 (개사)	생 산 (조원)	수 출 (억불)	고 용 (만명)
국 가	41	34	42,303	680	2,674	107
일 반	497	255	19,987	309	1,510	66
도시첨단	11	2	130	0.2	0.1	0.1
농 공	444	384	5,475	49	116	14
계	**993**	**675**	**67,895**	**1,037**	**4,301**	**188**

○ 전국제조업 생산의 65%, 수출의 76%, 고용의 44%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('11년)

< 제조업에서 산단의 생산·수출·고용 비중(%) >



< 지역제조업에서 산단 비중(%, 11년) >



2. 산업단지 문제와 원인진단

< 청년층과 첨단기업 유인체제 부재 >

□ 최근 **노후화 진전**과 **부정적 이미지**로 **청년층**의 **산업단지 기피현상**이 **심화**되면서 **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**됨

○ **노후산단**(착공기준 20년이상)의 수(102개)는 전체 산단(993개)의 10%에 불과하나 **생산 및 입주기업수**는 각각 **80%, 88%**(국가·일반산단 기준)*를 차지함

* 농공·도시첨단은 산단 전체 업체수의 8%, 생산의 5%에 불과하여 제외

○ **대학생 중 2/3이상이 산단 취업을 기피**(산단공, '13.6월)하고 있으며, **저임금(12.6%)**보다는 **부정적 이미지, 편의시설 부족, 환경오염, 교통불편** 등 **비경제적 요인(80.8%)**을 **주요 기피요인**으로 지적함

○ 따라서, 산단 기업들은 **높은 청년실업*** 에도 불구하고 **청년 인력난**을 호소함**

* 청년실업율 7.5%, 전체 실업율 3.2%(연령계층별 실업율, 통계청, '12년)

** 산단 전체인력 중, 청년층 수요비중은 29.1%인 반면 공급은 6.7%(산단공, '13년)

□ 또한,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**첨단기업들은** 이러한 **인력확보 애로** 등으로 산단보다는 **개별입지*를 선호**하는 경향을 보여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

* 산단 內 지식기반산업 비중은 27%에 불과, 첨단업체의 59%는 개별입지에 산재

○ 산단 내 기업들의 **해외 이전**과 **휴·폐업 공장 부지**도 **증가** 추세를 보임

* 산업단지 입주기업 4개社 중 1개社(23.5%)는 이주를 고려 (현대硏, '12.10)

* 국가산단 내 휴폐업부지 : ('12.3월)54.9만m^2 → ('13.3월)86.7만m^2

⇒ 산업단지 슬럼화와 환경 악화는 다시 **청년층 및 우수인재의 산단 기피**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

< 창의·혁신역량의 산단 外 지역 분산 >

□ TP, 지역특화 및 디자인센터, 출연연 분원 등의 **혁신기관들이 산단 외 지역으로 분산**되어 산단 내에 **창의·혁신 역량이 집적**되지 못하고 있음

* 국가산단에 위치한 TP(총 18개)는 3개에 불과, 디자인센터(총 4개)는 전무

○ 이에 따라, 해외 산업집적지와 비교시, 대덕, 구미 등 **국내 산단**의 **혁신역량,** 산학연 연계 **등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**

* 국내외 산업집적지 경쟁력 비교('12, 산업硏): 구미(52) < 대덕(61) < 獨 뮌헨(74) < 핀란드 울루(78) < 스웨덴 시스타 (85) < 美 실리콘밸리(91)

< 산업단지의 유지·관리 기능 취약 >

□ **산단공**(국가), **지자체**(일반) 등 관리기관의 **소극적 관리**와 **입주기업들의 자발성 부족**으로 **산단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**은 **역부족**인 상황

* 입주기업은 산단 관리를 지자체, 관리기관 등 공공부문의 책임으로 간주

□ 이에 따라, '08년 이후 산업부(구조고도화사업)·국토부(재생사업)는 각기 **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**하였으나, 정부지원 부족, 부처별 개별추진 등으로 **한계에 직면**

〈참고〉 파주출판단지의 사례

○ '출판도시'라는 **비전**과 **자율 규제**를 통해 문화가 있는 **품격있는 산업공간** 창조
○ **수요자인 출판인 주도 개발·관리**로 **수급 미스매치 해소** 및 **지속성 확보**
○ **출판·인쇄를 분리·집적**하여 **업종고도화 및 이미지제고**에 성공
○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**청년층 인력난 해소** 및 **문화관광지로 도약**


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


옥외간판


책방거리

3.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

□ **산업부,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**으로 **'14년 6개 단지*를 선정**하고 **'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****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

* 구조고도화(산업부) 2개, 재생(국토부) 4개 ** 구조고도화(산업부) 17개, 재생(국토부) 8개

○ 리모델링 대상단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/F를 구성하여 **진단**을 실시하고, 결과에 따라 **사업유형*을 구분**하여 추진

* 국토부, 산업부, 국토연, 산업연 등으로 구성(필요시 기재부, KDI 참여)

** 업종재편, 블록개발 → 구조고도화(산업부)/ 기반시설정비, 전면 재개발 → 재생(국토부)

○ **관계부처, 지자체 협업**을 통해 단지별 **종합계획(마스터플랜)을 수립**하고 **관계부처 사업을 집중 지원**

○ **공공시설과 개별기업 시설**에 **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, 입주기업 유지보수 활동 컨설팅**을 지원하여 구역별로 특화된 디자인환경 조성 추진

* 입주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으로 추진하되, 디자인진흥원의 컨설팅 추진

□ **25개 이외의 노후 산단**은 **지자체, 관리기관, 입주기업** 등이 **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**할 수 있도록 **제도개선, 성공사례 확산 노력**을 병행할 계획

□ 단지별로 핵심 거점에 **융복합집적지**를 **2~3개 조성**하고, **생산시설, 연구기관, 기업지원기관, 보육·문화·체육·복지시설** 등을 **관계부처 사업을 연계·활용**하여 조성토록 추진할 계획

< 융·복합 집적지 구상(안) >

구성 시설		전략분야 제조기업 및 연관서비스업체 입주	+	공용 R&D 인프라 (건축물, 장비, 시험·인증 등)	+	공용시설 (근로자 복지·편의시설 등)

○ **(구조고도화) 산단공**이 휴·폐업 부지, 미활용 부지 등을 **매수**하거나 **기보유 부지를 활용**하여 **'블록단위' 순차개발** 방식으로 추진

* (추진절차)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→ 노후공장·유휴용지 재개발 → 첨단지식센터·R&D·Business 시설 유치, 기반시설 정비

○ **(재생)** 우선 사업추진 지역을 정하고, 공장위주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, 인센티브* 제공 등을 통해 **고밀복합단지形 리모델링** 추진

* 용도지역 변경(공업→준공업·준주거), 최대 용적률 적용, 기반시설 확충 지원, 산업용지 비율 완화(대상면적 50% → 40%이상) 등(산입법 개정, '14.6월)

□ **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 지구**를 대상단지별로 **1개 이상 조성**하여 클린 산단 구현을 추진함

○ **동 지역**에 한해서는 **뿌리산업의 입주를 허용***하고 **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 일부****를 지원**

* 산집법 개정을 통해 '입주제한 금지에 대한 특례조항' 신설

** 폐수 처리시설 지원('14년 예산(안): 국비10%(60억)/지자체 25%/민간 65%)

4. 혁신역량 강화

□ 리모델링 단지에 조성되는 융복합집적지에는 **TP, 전문연, 시험인증기관 등의 분원*, 디자인 119센터** 등을 우선 설치**하여 혁신역량을 집적하고,

* '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'의 '연구기반구축사업'을 연계·활용

** 디자인 전문인력(약3명)이 해당 산단에 상주하며 디자인컨설팅을 지원 ('13년 5개 산단)

○ **산·학·연 협력체 구성을 촉진**('13년 68개 → '18년 100개)*하여 산·학·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, **기업주치의센터 확대**('13년 4개 → '14년 6개) 등을 통해 기업지원서비스도 강화

*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('13년 544억원 → '14년 577억원)

* (事例) 대구 성서산단의 A사는 미니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인근 기업간의 교류확대로 부품구매선을 일본기업에서 동일 산단내 기업으로 전환

□ 리모델링 단지에 **산학융합지구를 지정**('13년 6개 → '18년 25개(잠정))하여 산단 내 대학,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, 업종별 특화된 **전문도서관 조성***도 확대

*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시설 확충 추진('14년(안): 39억원)

□ **지역별**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'수요조사 - 훈련 - 채용'하는 **맞춤형 인력공동관리체계*를 구축·확산**하여 산단 내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

* 인천, 천안·아산, 부산,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('13년 368억원)

□ 신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친**환경·고효율 산단 구현**을 추진

○ 공장 지붕 및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**태양광발전시설 설치**를 확대*하고, **에너지효율기기**** 보급 확대 및 **통합 에너지 관리체계**(K-MEG)*** 구축도 추진

* '12~'13 시범사업(2~3개소), '13~'14 국가산단 10개소, '14~'15 국가산단 24개소
** LED보급사업자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, 설치비용은 전력소비 절감분으로 회수(7~8년 소요)
***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, 건물의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효율화하는 독립형 에너지 관리체계

5.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

□ 우선 산단 여성근로자가 보육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**TP, 산단공 지역본부** 등에 **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**

○ **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**(고용부)* 등을 정부지원 사업, **전경련 보육사업 등을 활용**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, **공장내 공동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**(산집법 시행령 개정, '14.6월)

* 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 실태조사 완료후 공모 방식으로 지원
  - 예산: ('13년) 231억원(산단에는 134억원 지원) → ('14년(안)) 237억원
* 전경련이 설치하여 무상기부, '09년부터 산단 내에 총 13개 어린이집 개소

□ 산단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**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**(산업부)*을 활용해 **오피스텔, 공동기숙사 등의 확충**을 추진하고, **공장내 공동 기숙사 설치도 허용**(산집법 시행령 개정, '14.6월)

*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(산업부): ('13년 예산)110억원 → ('14년(안)220억원

□ **통근버스 운행**을 **금년말까지 9개*에서 20개로 대폭 확대**하는 등 근로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,

* 시화, 달성1차, 달성2차, 명지녹산(부산), 부산과학, 하남, 평동(광주), 군산1, 군산2

○ 정부·지자체·관리기관 합동으로 **도로 등 기반시설 실태조사**를 실시하여 **단계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의 개선**을 추진

□ 관계부처(환경부, 산업부, 고용부, 방재청 등) 합동으로 **'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'**를 **'14년까지 6개산단에 구축**하고, 중소기업 취약설비 등의 안전진단, 종합적 사고대응 등을 실시하여 **안전관리 강화**

□ 산단 내 노후공장 등을 리모델링해 **전문박물관, 갤러리, 공연장 등을 조성***하고 산단별 테마거리 조성 및 관련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**근로자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**

* 산단 내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갤러리·공연장 등 문화공간 조성 ('14년(안): 125억원, 10개)
* (事例) 독일은 루르공업지역 리모델링시, 제철소 등 폐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, 콘서트홀, 전시장, 사무실 등으로 재활용하여 문화공간을 창출, 관광자원으로 활용

<산단별 테마거리와 행사(예시)>

산단명	테마거리	페스티벌
남동	Beauty Street	make-up 페스티벌, 콘테스트
반월	융복합 발명의 거리	엉뚱한 발명 경진대회
구미	IT기기 DIY 거리	나 하나만을 위한 IT기기 전시회
창원	로봇의 고향	로봇 파이터 대회
울산	Automobile Tuning Avenue	자동차 튜닝 콘테스트
광주	빛나는 거리	조명 예술 대회

6. 원활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

□ **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**하여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편의시설 확충도 도모

① **산업·지원·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'복합용지' 제도 도입***
(산집법・산입법 개정, '14.6월)

* (현행) 산업, 지원, 공공시설용지 분리 → (개선)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 가능

- 필요시, 일반공업지역을 **준주거**(최대 500%) **또는 준공업**(최대 400%)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**용적률 확대 적용***

* (현행) 일반공업지역(최대 350%) → (개선) 준주거(최대 500%), 준공업(최대 400%)

- **개발이익**은 **산업기반시설, 산업시설용지 가격인하 등**에 재투자

②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가 허용되는 **지식산업의 범위를 확대***(산집법 시행령 개정, '14.6월)하여 **산단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**

* (현행) 연구개발업 등 13개 업종 → (개선) 20개 업종(7개 추가)
* (추가업종)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, 보안시스템 서비스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,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, 환경정화 및 복원업,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,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

③ 산업단지 지정전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**개발계획에 입주업종을 제한업종 이외에 모두 허용***하여 업종변경의 탄력성을 제고

*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제외, 소규모 산단에 우선 적용,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 적용(산입법 및 시행령 개정, '14.6월)

④ **소규모(예: 5만㎡이하)** 산단의 개발행위의 경우 **개발계획 변경의무를 면제***(산입법 시행령 개정, '14.6월)하여 절차를 간소화

* (현행) 개발, 실시계획 변경(5개월 소요) → (개선) 실시계획만 변경(2개월 소요)

□ **윤상직 산업부 장관**은 **기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**을 **부처별로 개별추진**하면서 **성과창출에 한계**가 있었다고 밝히며 금번 대책을 통해 **범 부처 역량을 결집**하여 **가시적 성과를 창출**해 나갈 것이라 밝힘

○ 노후 산업단지를 **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**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사람, 문화, 기술, 산업이 융성하는 **창조경제의 중심**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,

○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**입주기업, 지자체, 관리기관 등 산단 구성원들이** 주인의식을 가지고 **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자발적·능동적으로 참여**해 줄 것을 요청함

[참고 1]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
[참고 2]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[참고 3]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(별도 첨부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종우 사무관(☎ 02-2110-53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재부 문의 :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박재진 서기관(☎ 044-215-4511)

참고 1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

일시 · 장소 '13.9.25.(수) 10:00~11:50, 청와대 영빈관

안 건

① 제1 ·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(기재부)
② 3차 투자활성화 대책
-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(기재부)
- 환경분야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(환경부)
-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(국토부 · 산업부)

③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(농식품부)

참석자 약 190명

○ **(정부)** 부총리, 미래부·교육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·해수부 장관, 기재부 1차관·산업부 1차관(토론진행), 외교부 2차관, 국조실 2차장, 식약처장, 관세청장, 산림청장, 중기청장,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19명

○ **(지자체)** 여수시장, 경기도 부지사 등 2명

○ **(유관기관)** 코트라 사장,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, 토지주택공사 사장, 산업단지공단 이사장, 산업연구원 원장, 국토연구원 원장, 수출입은행장,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8명

○ **(국회)**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, 김희정 의원 등 2명

○ **(경제계)** 경제단체장, 수출·투자 기업 대표 등 38명

회의진행 총 110분

○ 개회(3분) → 모두말씀(10분) → 안건보고(20분) → 토론(65분) → 마무리말씀(5분) → 폐회·격려(7분)

○ 토론세션(2개)별로 참석자가 발언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하여 현장에서 직접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(trouble shooting)

참고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담 당 부 서	담 당 과 장	담 당 자
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	윤성욱 (044-215-4510)	박재진서기관(044-215-4511)
		강창기사무관(044-215-4512)
신성장전략과	박금철(044-215-4550)	박창일사무관(044-215-4554)
지역경제정책과	배지철(044-215-4570)	최원석사무관(044-215-4572)
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	장우삼(02-2100-6877)	김태환주무관(02-2100-6541)
문화부 관광산업과	김장호(02-3704-9751)	김성은사무관(02-3704-9754)
산림청 산지관리과	김용관(042-481-4140)	김원중사무관(042-481-4148)
		유세원주무관(042-481-4298)
문화부 국제체육과	이정우(02-3704-9871)	최승진사무관(02-3704-9207)
농식품부 방역관리과	박정훈(044-201-2371)	홍기성사무관(044-201-2379)
환경부 정책총괄과	김승희(044-201-6640)	배연진사무관(044-201-6641)
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	최연우(02-2110-5131)	박헌진사무관(02-2110-5132)
국토부 도시정책과	최임락(044-201-3706)	오현석사무관(044-201-3709)
산업부 입지총괄과	김용채(02-2110-5301)	차세운사무관(02-2110-3923)
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	윤의식(044-201-3674)	김성수서기관(044-201-3677)